해외경제·투자정보

2010. 3.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와 전망

1. 대선 결과

□ 2010년 2월 7일 결선 투표에서 야누코비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 최종 개표 결과, 1,248만 표(총 유효표의 48.95%)를 획득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후보가 1,159만 표(45.47%)를 얻은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를 누르고 승리함.

□ 티모셴코 총리, 선거 결과에 불복

○ 티모셴코 총리 진영은 '야누코비치 진영이 선거 참관인단의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2010년 1월 14일 최고행정법원에 제소하여, 최고행정법원은 선거 불복 소송 심리가 끝나는 1월 17일까지 대선 결과의 효력을 정지시킴.

□ 티모셴코 총리의 소송 취하로 야누코비치 대통령 공식 취임

○ 소송이 제기되자, 정국 안정을 위해 티모셴코 총리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데다, 다수의 해외 선거감시단[1]이 이번

1) 유럽회의 의원총회(PACE), 유럽연합(E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대부분의 해외 선거감시단이 이번 선거가 큰 부정 없이 민주주의 기준에 맞게 실시되었다고 평가함.

선거를 절차에 문제가 없는 공정선거로 평가하고, 미국·EU 등도 야누코비치의 승리를 인정하자, 티모셴코 진영의 입지가 위축됨.

○ 결국 티모셴코 총리는 "법원이 우리가 제시한 증거 심리와 증인들의 증언 청취를 거부한 상황에서, 소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2010년 2월 20일에 대선 무효 소송을 취하함.[2] 야누코비치 당선자는 2010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음.

2. 의의

□ 오렌지 혁명의 주역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표출된 결과

○ 야누코비치 현 대통령은 2004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지지 속에 여당 후보로 출마하여 빅토르 유셴코 당시 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3]하였으나, 부정선거 시비로 오렌지 혁명이 촉발되었고, 결국 2005년 1월의 재선거에서 유셴코에게 약 8% 포인트 차로 패하였음.

- 이후 야누코비치는 반 유셴코 세력을 규합하여 `지역당'을 이끌며 재기를 모색함.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야당 지도자로서 입지를 굳혔고, 같은 해에 유셴코 대통령의 친서방 정책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총리로 재기용되기도 함.

○ 이후 2007년 9월에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야누코비치는 유셴코-티모셴코 연대에 패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나, 유셴코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제위기 발생 등을 이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야누코비치 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오렌지 혁명의 주역인 유셴코

2) 일부에서는 티모셴코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후일을 기약하려는 것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3) 야누코비치는 2002년에 총리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총리 재직 시에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연 10% 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에게 정치 혼란과 부패, 경제 불안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였음.

오렌지 혁명

2004년 대선의 1차 투표는 러시아의 지지를 받던 야누코비치 총리의 승리로 끝났지만, 여당이 부정 선거를 치렀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규탄 시위가 벌어졌음.

당시 유셴코 후보를 지지하였던 티모셴코는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의 옷을 입거나 목도리를 걸친 시위대를 이끌면서 재투표를 요구하였고, 결국 유례없는 재선거가 결정되었음.

2005년 1월에 실시된 재선거에서 야누코비치가 유셴코에게 패하자, 서방 국가들은 이를 `오렌지 혁명'이라 부르면서 무혈 시민혁명으로 높이 평가하였음.

국민들은 서유럽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 안정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여 의회와 대통령이 법안 처리에서 갈등을 겪고, 대통령과 총리도 반목하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워 짐.

부패청산과 산업혁신 등 개혁 작업도 정쟁(政爭)으로 더디게 진행되던 중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오렌지 혁명의 주체 세력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하게 됨.

3.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이후의 정치 동향

□ 티모셴코 정당 연합의 해체

○ 우크라이나 헌법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총리를 선출하도록 규정[4]하고 있어, 티모셴코 총리는 본인이 이끄는 `티모셴코 블록', 유셴코 전 대통령의 `우리우크라이나', 리트빈 국회의장의 `리트빈 블록' 3개 정당으로 정당 연합을 구성하여 내각을 이끌어 왔음.

○ 그러나 2010년 3월 2일 티모셴코 총리가 주도하는 3개 정당 연합이 과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의장이 이 정당 연합의 활동 중단을 선언함.

□ 티모셴코 총리 내각 불신임안 가결

○ 야누코비치가 이끄는 '지역당'이 2010년 2월 19일에 발의하였던 티모셴코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2010년 3월 3일에 과반수 의원의 찬성(총 450명 의원 중 243명)으로 통과됨.[5]

- 이는 경제개혁 실패와 정국 불안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유셴코 전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로 대변되는 `오렌지 연대'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함.

□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새로운 정당연합 구성과 총리 인준 성공

○ 2010년 3월 11일 '지역당', '공산당', '리트빈 블록' 및 무소속 의원들이 총 235석의 과반수 의석을 가진 새로운 정당연합을 구성하여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의 인준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음.

4) 우크라이나의 정치제도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임.
5) `티모셴코 블록'에서 7명, `우리우크라이나'에서 15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짐.

- 아자로프 총리 지명자는 러시아 태생이고, '지역당'의 부총재로서 야누코비치의 최측근 인사임.

○ 새로운 정당연합을 구성하는데 실패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6]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연합을 구성하는데 성공함과 아울러 측근 인사가 총리로 인준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게 되었음.

4. 향후 전망과 과제

□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전망

○ 전임 유셴코 대통령의 집권기에는 EU·NATO 가입 추진, 러시아어의 공용어 배제,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반대, 가스 분쟁 등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음.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유럽안보조약기구의 창설 지지, 러시아어의 제2공용어 복귀,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연장, 가스 협력 확대 등 친러시아 정책을 취하면서 러시아에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2010년 3월 5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 통상, 우주, 항공기 제작, 원자력, 나노기술, 군사기술, 정보기술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EU 사이에서 실리주의 노선을 택할 전망임. 예를 들면 경제 발전을 위한 EU 가입에는 찬성하나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NATO 가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6) 금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경우 2006년 3월, 2007년 9월에 이어 오렌지 혁명 이후 3번의 총선과 2번의 대선을 치르게 됨으로써 잦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대규모 선거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또한 당선 이후의 첫 방문지를 모스크바가 아닌 브뤼셀(EU 대표부 소재지)로 결정하여 친러 인사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함.

□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경제난 극복

○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투자자본 유입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주요 수출품인 철강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액도 크게 감소하여 2009년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고, 재정적자는 GDP의 6%로 추정되는 등 경제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표 1> 우크라이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f
경 제 성 장 률	7.3	7.9	2.4	-15.0	2.5
산업생산증가율	5.7	10.3	-3.8	-23.4	5.0
재정수지/GDP	-0.6	-1.1	-1.5	-6.0	-5.0

자료: IMF, EIU.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3대 신용평가기관은 공히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 S&P는 2009년 2월 신용등급을 `CCC+'로, 피치는 2009년 11월 `B-'로, 무디스는 2009년 5월 'B2'로 하향조정 하였음.

<표 2>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급

평가 기관	2007	2008	2009
S & P	BB- (Negative)	B (Negative)	CCC+ (Stable)
Moody's	B1 (Positive)	B1 (Stable)	B2 (Stable)
Fitch	BB- (Positive)	B+ (Negative)	B- (Negative)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 우크라이나는 2008년 11월에 IMF와 구제금융 프로그램(총 164억 달러)에 합의하였으나, 이 자금 중 200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4차분 60억 달러의 인출이 정치적 혼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7)]

- 안정적 재정운용과 경기 회복에 필요한 IMF 금융지원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2010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치적 안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동서지역간 갈등 방지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

○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인(78%), 러시아인(17%), 벨로루시인, 루마니아인 등 다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 공업지역(러시아인)과 서부 농업지역(우크라이나인) 간의 민족, 문화적 차이가 정치적 성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친러 성향의 동부지역에 유리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역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티모셴코를 지지하는 중서부 지역의 이해관계도 반영하는 등 균형 있는 국정 운영이 필요함.

- 지역 갈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필수적인 정치 안정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조사역 고안나 (☎ 02-3779-5654)
E-mail : anna@koreaexim.go.kr

7) 2008년 11월, IMF는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악화되자 총 164억 달러(110억 SDR) 규모의 대기성차관을 2년간 지원하기로 하면서 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 자금 중 2008년 11월에 45억 달러(30억 SDR), 2009년 5월에 28억 달러(19억 SDR), 2009년 7월에 31억 달러(21억 SDR)가 각각 집행되었음.